

###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 <54> 마음을 챙기면서 공부하라

앞장에서 보았듯이 값비싼 정보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담아 보시한 것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번이라도 귀담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더 큰 공덕이다. 뒷날 이 마음을 성불(成佛) 부처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부처될 씨앗만 심었을 뿐 부처가 된 것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자신의 마음을 늘 돌이켜 보지 못한다면 온갖 경전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수행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근본 뜻을 모르고 글이나 외우고 뜻 풀이만 하는 여러식음을 저지러서는 안 된다. <선가귀감> 54장에서는 말한다.

看經 若不向自己上做工夫 雖看盡萬藏 猶無益也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도 마음공부가 익어가지 않는다면 온갖 경전을 다 보았다 할지라도 공부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느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고 기뻐하면 이 가르침은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 그러나 글자를 쫓아 다 하고 하여 자랑을 일삼는 사람, 경을 좀 많이 보았다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 교만한 사람이며 자기를 앞세워 시비 분별이 많은 사람이다. 이들은 자기 생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부처님 법을 사된 법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도 잘 알지 못하고 어떤 경계에 집착하여 헤어나지 못한다.

<육조단경>에 나오는 법달 스님도 <법화경>을 삼천 번이나 읽고 외웠으나 아반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공부에

진전이 없었으니 이런 공부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도 불법과 멀어지게 하는 큰 죄업을 지을 수 있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此明遇學 如春禽晝啼 秋蟲夜鳴 密師云 識字看經 元不證悟 銷文釋義 唯熾貪瞋邪見

어리석은 공부는 마치 화창한 봄날에 새들이 지저귀고 깊은 가을밤에 풀벌레들이 우는 것과 같아서 아무런 의미가

#### 글귀나 새기는 것은 탐욕 · 사견만 일으킬 뿐

#### 모든 인연 쉬고 마음 돌이키는 순간 無生 증득

한다는 것을 밝힌다. 종필 스님은 “글자나 읽고 경만 보는 것으로는 본디 깨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글귀나 새기고 말 뜻이나 풀이 보는 것은 탐욕이나 성냄, 사된 소견만 더 일으키게 할 뿐이다”라고 말하였다.

‘화창한 봄날에 새들이 지저귀고 깊은 가을밤에 풀벌레들이 우는 것과 같다’라고 번역한 춘금주제(春禽晝啼) 추충야명(秋蟲夜鳴)은 <호법론(護法論)>에서 따온 글로서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경을 보는 모습이 겉으로는 번듯한 자세를 갖추었더라도 안으로는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면 경전 속에 있는 법은 글자들만 아무 의미 없이 더듬고 있을 뿐이니, 이것이 어찌 아무런 의미 없이 화창한 봄날에 새들이 지저귀고 깊은 가을밤에 풀벌레들이 우는 것과 다를 것이 있겠느냐? 비록 경전을 백만 번 읽는다 할지라도

도 과연 여기에 무슨 이익이 있을 수 있겠느냐[若形留神往 外寂中搖 則尋行數墨而已 何異春禽晝啼 秋蟲夜鳴 雖百萬遍果何益哉]?”라고 되어 있다.

“글자나 읽고 경만 보는 것으로는 본디 깨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글귀나 새기고 말 뜻이나 풀이 보는 것은 탐욕이나 성냄, 사된 소견만 더 일으키게 할 뿐이다”라고 풀이한 ‘식자간경원불증오(識字看經 元不證悟) 소문석의유치탐진 사견(銷文釋義 唯熾貪瞋邪見)’은 규봉 종필 스님의 저서 <도서>에서 인용한 것이니 그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만약 자신의 마음을 돌렸다면 드러난 가르침에만 집착한 것이니 부처님의 도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찌 있는 자리에서 진리를 드러내 보려 하지 않습니까? 글자나 읽고 경만 보는 것으로는 본디 깨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글귀나 새기고 말 뜻이나 풀이 보는 것은 탐욕이

나 성냄, 사된 소견만 더 일으키게 할 뿐입니다. 더구나 아난은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듣고 다 외웠지만 오랜 세월 성인의 깨달음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을 쉬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생멸이 없는 무생(無生)을 증득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 주는 이익과 공생을 제도하는 방법이 저마다 그 깨달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자만 귀하게 여길 것은 아닙니다[若不了自心 但執教 欲求佛道者 豈不現見. 識字看經 元不證悟 鎮文釋義 唯熾貪瞋邪見 阿難 多聞總持 積歲 不登聖果 息緣返照 暫時 即證無生 即知 乘教之益 度人 之方 各有其由 不應於文字而貴也.]”라고 되어 있다.

부처님을 따라 다니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빼놓지 않고 다 듣고 외웠던 제자가 아난이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제자 오백 명이 부처님 말씀을 모

아 정리하려고 할 때 처음에 아난은 그 자리에 끼질 못했다. 부처님 말씀을 빠짐없이 다 외우고 있더라도 마음자리의 근본을 모른다 하여 쫓겨난 것이다.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아난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 부처님께서서는 가섭을 의지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경전 결집의 최고 우두머리인 그 가섭한테 쫓겨난 것이다. 쫓겨난 아난이었지만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고 잘 생겼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전달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법문을 자주 청하였다. 법문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와 아난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번잡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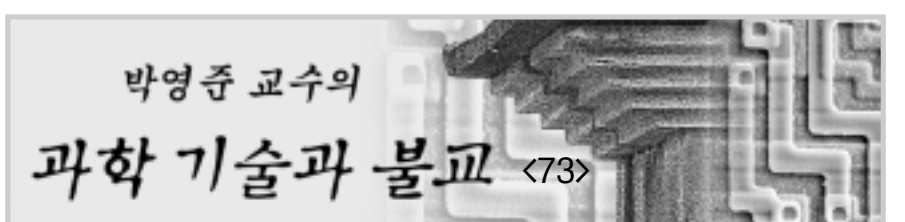
그때 선정 속에서 오고가는 인연의 흐름을 그대로 알 뿐 분별없이 오직 진실만을 보는 ‘발기’라는 스님이 숲 속에서 공부하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스님은 “아난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는 재미에 속아서 자기 말제주에 빠져 바른 길을 벗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자 그를 찾아가 계승으로 일러주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 나무 밑에서 / 열반 위해 그 마음을 써야 하느니라

아난이여 부지런히 참선을 하라 / 많은 말을 어디에다 갖다 쓸 것인가. (靜處坐樹下 心趣於泥洹 汝禪莫放逸 多說何所爲)

이 계승을 듣고 아난은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태껏 부처님 말씀만 녹음기처럼 외우는 것을 공부 잘하는 것으로 알았던 아난은 정작 부처님 말씀의 근본 뜻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충격을 받은 아난은 그때부터 열반이 무엇이고 마음자리의 근본이 무엇인지 생사를 걸고 정진하였다. 어느 날 밤잠을 자지 않고 정진을 하다 잠시 쉬려고 옆으로 누는 도중에 홀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서산의 제자 청매(靑梅) 스님도 “마음을 돌이켜 그 근본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경을 보아도 이익이 없다[心不返照 看經無益]”라고 하였으며, 모름씨가 부처님의 제자라던 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 마음가짐을 단단히 챙겨야 할 것이다.

■ 원순 스님(승려사 인월암)



###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73>

#### 뇌 과학

머칠 전에 서울대학교의 뇌 연구실을 방문하였다. 연구실은 20평 남짓한 공간인데, 원숭이 다섯 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다. 모두 두개골 수술을 받아서 정수리로 관이 나와 있는 상태였다. 이 관에 장착된 도선은 뇌의 전기신호를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눈동자가 움직일 때 뇌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동물을 포함한 인간의 시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오열을 막기 위해서 원숭이를 철사로 묶어 고정시켜 놓았다. 이런 실험 결과로 인간의 뇌질환을 이해하고 치료하게 된다면, 실험의 대상으로 죽어간 원숭이를 포함한 수많은 동물은 보

물라운 것은 유전자로 구성하는 DNA 쌍의 수가 쌍의 배열 방식에 의해서 우리의 모습이 결정된다. 30억개 정도나 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와 다른 모양을 가진 쥐, 침팬지가 사람과 각각 10% 그리고 1.2% 정도 밖에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과학자들은 또 뇌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뇌의 각 부분의 역할과 작용을 지도를 보는 것처럼 상세하게 알고 싶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난관은 살아있는 사람의 뇌 세포를 채취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쥐의 뇌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해서 최근 쥐의 뇌 지도를 완성했다(www.brainmap.org). 이 지도에는 쥐의 뇌

#### 영혼 영역인 ‘뇌’ 물질 영역으로 점점 내려와 불법이 미래의 과학적 접근에 어떠한 ‘빛’ 줄까...

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이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특히 인간의 과학이란 무엇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일까. 서양 과학의 전통 즉 엄밀한 수학적 측정에 의해서 가섭을 법칙으로 만들고 백명이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를 도출하고 또 앞의 일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현대과학자들은 인간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첫 걸음은 역시 인간의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를 이해하는 것이다.

20세기는 인간의 유전자 맵을 완성하는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자들 모두 읽어내고 각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던 엄청난 일이 생명과학, 컴퓨터 그리고 나노 과학의 힘으로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되었다.

세포 내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어떤 분자들로 집을 만들어 내고, 이 물질의 역할과 상호 관련 정보를 삼차원으로 제공하고 있다. 과학은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인간의 내부 분자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있다. 이러한 진전은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영혼의 영역이라 뇌가 점점 육체의 영역, 물질의 영역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한 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혼합되고 있다.

색과 공을 분리하지 않는 부처님의 법이 미래의 과학적인 접근에 어떠한 빛을 주게 될지 그리고 과학의 추구가 가져다 줄 한계를 부처님 법이 해결할지 알 수 없다. 어쩌면 이것은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불자들의 숙제일지도 모른다.

■ 서울대 전기공학부



###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 니까야(Nikāya)

동산반야(회장 김재일)가 최근 ‘흥미로운’ 신행결과를 출판시켰습니다. 한글니까야독송회가 그것인데요. 이 모임은 한역본(漢譯本)이 아닌, 팔리어 본을 직접 우리말로 옮긴 초기 경전, 즉 <디가니까야> <맛지마니까야> <쌍웃따니까야> <앙국따라니까야> 등의 5부 니까야를 장정 7년에 걸쳐 읽을 예정이다. 석가모니부처님의 생생한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의욕과 원력이 대단합니다.

니까야(Nikāya)란 부류(部類)·부파(部派)로 번역됩니다. 석가모니 입멸 후 약 100여 년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경장(經藏)으로 집대성됩니다. 이후 교단이 여러 부파로 분열되면서 각 부파마다 성전을 갖게 되는데, 남방상좌부의 경장이 니까야입니다.

5부 니까야는 한역어합경에 상응합니다. <디가니까야>가 <장아합경>, <맛지마니까야>가 <중아합경>, <쌍웃따니까야>가 <잡아합경>, <앙국따라니까야>가 <중일아합경>에 상응합니다. <룻따니까야>는 <법구경> <본생담> 등으로 한역되어 있습니다.

이들 니까야에는 불교의 중심사상인 사제(四諦)·팔정도(八正道)·십이인연 등의 교리가 일관되게 서술돼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의 교훈이 되는 내용이 풍부하고 부처님의 인간미까지 느낄 수 있어 부처님 가르침의 원형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 2007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월 3일개강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들을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0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무전장스님(본대학학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성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정업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김형준교수 · 태원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암도스님(전교무원장) · 김호득(동국대교수) · 최충석(금강대교수) · 윤열수(문화재단위원장)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황안스님(금강선원총재)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병철(동명대학원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모집인원	· 불교학과(200명) (영구권 100명) · 불교대학원(100명)	· 불교를 적극 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합판사진 3매	· [불교학과] 2007년 1월 2일~ 2007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영구권)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안반)	· 동산반은 재능기부자 출석수당이 아예없다
------	--	---------------------	---	--	-------------------	--	-------------------------

4. 입학 일시 불교학과 : 2007년 2월 3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부산: 부다가이서점 051) 865-4383 · 대구: 삼영불교서점 053) 425-4097 · 대전: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불일서점 062) 232-7542

\* 특선시정: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생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서를 거쳐 연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 2007년 황금돼지해 경신도통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비법을 얻어 황제가 되어 운명을 바꾸어 출세와 성공에 감춰진 운수대통 경신 천안통 특별 대법회

생명의 근본은 태식에 있고, 운명과 수명은 내 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노병사 해탈법은 경신 도통에 있느니라.

전생병의와 중음신 해리의 잠식으로 병의된 영이 나가면 대신 더 큰 신이 들어오는 것을 회원상생할 수 있는 경신도통 전생으로부터 병의된 영자들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천도, 기도, 최면, 국 등 방편으로는 관명천으로 그냥 보낼 수 없으며 관명천으로 보내는 진법계도법의 주문은 있으나 그 누구도 알지못하므로 경신도통을 하지않고 그 어떠한 주문도 용납되지 않으며 하늘이나 땅이나 일체 조상 빙의영가들이 알아 듣고 빛으로 광명세계로 천도되어 가는 주문을 모르기에 경신이란 하늘경 햇빛경 신은 귀신우두머리신이므로 모든 빙의신 중음신 해리신 명마귀신 잠신 천신 만신 색신 수신 화신 독신 도신 금신 구명신 모든신들을 하늘나라 불사신 광명천으로 경신일 자시에 불러내고 경신일 정오시에 영산대제 법패로 회원상생시키는 천지대도법이 경신도통인 것이다.

● 달마도법 태식법이란?? 생노병사를 초월하는 법이며 모르면 영이 되어 치료해도 안되는 잠신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을 제도 해탈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제하는 수행법인 것이다.

이법 대운맞이로 출세와 명예 경쟁에서 이기고 국가의 문관판관 관록을 얻어 잔금 및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대기업의 총수를 하려면 경신도통 특별기도 동참으로 경영사업, 결혼 못하는 가정, 고시합격을 못하는 가정, 생남발원, 건강 부귀 장수 애환, 고혼, 후인, 유령, 무명 선망부모님들을 사정상 49제 못물린 가정

[특별기회] 경신도통 7x7=49제 합동수행금 55만원 전생병의와 해리로 고통받고 중음신과 삼사구중으로 육신의병, 정신의 병, 잠신에 병의된 빙의제도법 특별 대법회사 직강

— [특별대일대사 코너] 경신일 당일특별상담 —

얼굴만보면 짜증나고 해도 안되는 사주팔자를 얼굴상을 바꾸어 팔자 고치는 이벤트. ※대도진인 도법으로 바꾸는 것은 얼굴에 상인으로 광대뼈, 코뼈, 턱뼈, 들창코 및 몸매 균형이 자기띠와 사주팔자가 맞아야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어 부자로 사는 법 연에게 및 애슬게 지망생, 예뻐지고 싶고, 젊어지고 싶은 지망생

경신도통하면 조상과 전생부터 내려오는 자신의 업장과 모태유산 살생한 일체영가를 제도해탈만이 도를 통하는 것이고 천장지비로 감춰진 혈단법, 예단경만이 일체영가가 알아듣고 이생에 모든 인연을 끊고 원없는 광명천으로 천도되는 경이고 결혼에도 예단을 주고 받아야 부부가 되는 것이다.

정해년 천안통 법회에 범부나 성인이 혜명을 득도하는 비법인 진법을 도통군자들에게 참된예의 종자와 주인공인 나를 감추고 있는 으뜸가는 관문을 바르게 수행하는 법과 혜명과 성품이 갈라져있는 참법을 즉시 도통전성하는법이며 영통능력과 말문을 열어 초능력을 혜명과 성품이 둘로 갈라져 혜명은 성품 즉 마음자리를 볼 수 없이 육신만 자랑하면서 성장하자마자 늙고 병들어 제육신하나 팔리 못하는 종교지도자, 모든수행자들에게 특별 경신수행으로 신신이나 황제가 되어 만천하를 제도하며 살아가는 천하제일의 최상승법인 것이다. 선지식을 비롯 오직 사상 유래없는 경신도통 심령도통 자신도통, 말문도통으로 하늘의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만법을 얻어 만중생을 제도하는 특별대법회

●입제: 양력 2007년 1월 25일(음, 12월 7일 목)(해시)  
●해제: 양력 2007년 1월 26일(음, 12월 8일 금)성도제일  
02-821-6622, 821-7767, 016-239-3110  
●정해년 경신도통법회 1년 동참기도비 60만원(분납가능)  
●농협 029-01-167866 광대일 [선착순 접수]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하차, 2번출구 모자원길 쪽 300m 관음경사 내

웅 조 달 교 진 인 경 신 도 통 회  
세 계 불 교 달 마 중 중 본 산